

# 25일 무등산 정상 다시 개방... 내년부터 年 4회 문 연다

### 서석대~인왕봉·지왕봉~부대정문 0.9km 市·공군부대 합...방공포대 이전사업은 '담보'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광주일보 8월21일자·9월22일자 1면>을 밝힌 공군이 오는 25일 무등산 정상을 다시 개방하기로 했다. 공군이 지난 4월 12일로 예정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6·4지방선거의 중립성을 이유로 중단한 뒤 반년 만에 재

개한 것이다. 다만 지역민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은 여전히 담보상이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일 "최근 공군측과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을철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내

년부터는 예전처럼 연간 4차례씩 무등산 정상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등산 정상 개방은 올 들어 첫 번째로 세월호 사고와 6·4지방선거, 부대훈련 등의 이유로 중단된 후 공군측에서 지난 8월 앞으로는 정상개방 행사를 전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통보해 지역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개방노선은 서석대~인왕봉·지왕봉을 거쳐 부대정문으로 나오는 0.9km 코스이며, 무등산 일주도로와 옛길, 규봉 등

탐방로를 따라 가을 정취를 담은 단풍과 낙엽길을 밟으며 정상까지 탐방할 수 있다. 정상 개방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군부대 내에서는 군사시설을 포함한 통제구역 출입과 군사시설 활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등을 버려서도 안 된다. 1966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출입이 통제됐던 무등산 정상은 45년만인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총 24만여명(10

회)이 다녀갔다. 김동수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무등산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드는 시기로, 전국에서 수많은 산악인이 정상개방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행사 당일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온차가 심한 시기이므로 따뜻한 음료수와 두꺼운 겉옷 등 여벌 옷을 준비해 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등산 정상 10만8000㎡ 부지에 위치한 방공포대의 이전사업은 여전히

담보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는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 부대 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전비용 500억원의 확보는커녕 이전대상지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美 존 오키프 등 3명 '노벨의학상'

뇌세포 위치정보 처리 체계 밝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에 뇌세포의 위치정보 처리 체계를 밝혀낸 미국의 존 오키프 박사와 부부 과학자인 노르웨이 마이-브리트 모서와 에드바드 모서 등 3명이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올해 노벨상 수상자로 "뇌세포 내에서 '몸안의 GPS'라고 할 수 있는 위치정보 처리시스템을 발견,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원리를 규명한 세 과학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오키프 박사가 수상 업적에 절반을 기여하고 모서 부부가 나머지 절반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생리의학상 외의 다른 부문은 7일 물



존 오키프 마이-브리트 모서 에드바드 모서

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0만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연협뉴스

## 광주~제주 '티웨이 취항 효과'

9월 이용객 3만명 늘어 10만명 돌파...티웨이 수송률 32%

지난달 광주~제주 노선 항공이용객이 저비용 항공인 티웨이 취항 효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6일 광주시가 집계한 9월 광주~제주 노선 이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용객은 10만136명으로, 이 중 아시아나항공이 3만7116명(37.1%), 대한항공 3만1045명(31.0%), 티웨이항공 3만1975명(31.9%)을 수송했다. 지난해 9월 6만8877명 대비 3만1259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4일 저가항공사 취항으로 하늘 길이 1일 8회에서

12회로 확대되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저비용 항공인 티웨이항공의 취항으로 타항공사의 이용객 잠식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오히려 신규 항공이용객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하고 저렴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과 구충근 화순군수,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이선 화순군의회 의장이 6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동북댐 이서적벽 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화순군 이서적벽 개방 협약

23일 적벽문화제·개방행사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이서적벽'이 42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서적벽은 지난 1973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출입이 통제돼왔다. 광주시와 화순군은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는 23일 동북댐 이서적벽을 개방하기로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시의회의장, 구충근 화순군수, 이선 화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광주와 화순의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방, 방향정 주변 안전 펜스 설치, 방향정 시설물 무상관리 위탁 등을 맡게 되며, 화순군은 사전예약에 따른 전용차량 운영, 상수원 환경영양 방지 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대책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적벽 개방은 사전에 화순군에 예약을 한 인원에게 화순군이 전용버스를 주 3회 오전과 오후 임도를 이용, 망향정(望鄕亭)까지 이동해 관람하게 된다. 광주시와 화순군은 23일 개방일에 맞춰 망향정에서 실황민과 거주민 화합의 장으로 열리는 적벽문화제와 함께 개방 행사를 열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윤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라고 강조한 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도가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한 현안사업에 공동으로 대처해 당당히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광주와 화순 사이에 더 아름다운 상생의 꽃을 피울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글마을'서 한글축제

9일 나주 금안마을, 창제 주역 신숙주 생가 복원행사 등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숙주의 고향이자 한글마을로 잘 알려진 나주시 노안면 금안마을에서 9일 한글축제가 열린다. 주민들로 구성된 금안권역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신숙주 생가복원 등 한글마을로 거듭난 종합정비사업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나주시는 6일 "금안리 체육공원에서 어린이난타공연, 풍물, 마을주민 장기자랑, 가훈짜주기, 8세 바람댕 만들기 등 각종 공연과 체험 등을 마련하는 한글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보한재 신숙주(1417~1475)의 고향이자 400년간 이어온 대동계(大同契)로도 유명하다. /나주=손영철기자 yjyson@

영암 구림, 정음 신태인과 함께 호남의 3대 명촌이며 경렬사, 쌍계정, 설재서원 등 사원과 정자, 효자·열녀비 등이 20여 개가 있는 선비의 마을이기도 하다. 나주시는 신숙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 복원과 공원 조성 등 한글마을의 교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3억원을 들여 '한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내 보한재 학당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초·중학생에게 방학을 이용해 한문과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금안마을은 고려말 학자 설재 정자신과 조선시대 대학자인 신숙주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이라며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에서 여는 축제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jyson@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렌즈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노안리식/Kam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인드롬 니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질,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원:광고심의원길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에드를 레이저: 수주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쉐플렉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부 미백: 쉐플렉스, 쉐플렉스, 쉐플렉스
-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 ⑦ 비인: 내오음프, 지방흡입

상무점: 광주광역시 미도피아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